

고은 불교 대하소설

별 이야기

바야흐로 금강산 경계에 다가왔다. 차츰 산세가 그 범용한 것으로부터 수려한 쪽으로 달라지고 있었다.

“금강산 1만2천봉”이라는 굵은 글자를 음각한 돌기둥이 마치 두사람을 일단 멈추라는 뜻이 서 있었다.

파편은 그 위압적인 돌기둥에 슬그머니기가 질렸다. 무욕도의 아무런 유서도 없는 조촐한 도량에서 살아온 것 밖에는 없으므로 이같은 본격적인 진용을 갖춘 산중 입구에서 미리부터 기가 질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가 수행자가 되기 전이라 해도 사골된 텅 빈 포구의 거리가 아니면 하루내내 파도소리에 갇혀있는 먼 바다의 그 망망한 세상의 피할 수 없는 무기질(無機質)의 절망 밖에는 경험한 것이 없다.

물론 조기철이면 굶도 없는 조기철 행진이 바다 밑으로 커다란 소리를 내며 지속될 때의 그 비장한 느낌은 실로 드문 경험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사뭇 다른 이 금강산 경계의 삼엄한 기운은 일단 파편에게 여지없이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디 파편 분이겠는가. 내로라하는 수월도 금강산에 가까워지는 동안 어정쩡한 것이었다.

“과연 좋은 도량인 것 같소.”

라고 수월이 한 마디 꺼냈다.

문득 저자나무 숲이 다른 오래된 나무들

년 묵은 여우의 툇잡인가?
하지만 수월은 그 곰보에게 조금도 당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금강산에 들어가시는 겁입니까?” 라고 제법 너스레까지 내보이며 말을 걸었다.

“나는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한방종의 발등을 바라보는 것이 일입니다. 이제 그곳의 밤은 여간 춥지 않아서 털가죽이나 무명천 누비옷따위로는 견딜 수 없어서 몇 달동안은 그 일을 아래로 내려와서 이어갈 도리 밖에 없습니다.”

“별? 별을 바라보시나요? 혹시 별로 점(占)이라도 치십니까?”

“아닙니다. 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셈입니다.”

“별과 함께 공부라?”

“아요. 별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사람들과 공부하는 것보다 월등한 일입니다.”

이양에 말을 주고 받게 되자 수월은 마음에 두고 있던 말을 꺼냈다.

“도피안사 주지로서 계시면서도 별과 함께 공부하셨습니까?”

곰보처사는 실로 눈 깜짝할 사이 수월을 쏘아보는 것 같았으나 바로 발 얘기로 돌아갔다.

그가 말하였다.

“별들도 공부합니다. 별의 운행 자체가 공부인 것이요, 우리나라 어진 사람들은 태고 이래로 별 별에게로 올라가기도 하고 별들을 지상에 불러서 내려오기도 하면서 언제나 별과의 대화를 해왔답니다.”



“신계사에 가서 도인을 만난다고 천지가 개벽이라도 되겠습니까?”

“개벽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쑥 나타난 곰보가 한마디 세부리었다.”

“제법이로군. 금강산에 들어가 한바탕 휘저어볼지도 모르겠지”

파는 따로 굴라를 이루고 있는 곳에 이르자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계곡의 물이 몹시 강한 울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넓은 폭의 계곡 가장자리 풀 푸레나무 자리에 앉아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후닥닥 날아갔다. 파편이 잠시 놀랐다. 그 까마귀가 날아간 뒤 돌기둥 저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어서 오시오.”

라는 말소리는 낮익었다.

어니나 다름없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도피안사 곰보주지였던 것이다.

“아?”

라고 파편이 의아한 신음소리를 냈다. 수월도 마치 각오라도 했던 것처럼 태연한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은 차츰 다른 것으로 바뀌어갔다.

도대체 이 곰보처사는 누구란 말인가? 사립인가? 귀신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백

“...”

“옛 현묘(玄妙)한 도(道)라 함은 거의가 다 별과 함께 공부한 데서 얻은 열매였습니다. 그것은 부처다 중니(仲尼-공자)다 또 어떤 산신이다 하는 것 이전의 도입니다.”

“이런 일을 불교의 한 선승이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옛 부처가 아직 태어나기 전의 그 까마귀한 옛날 옛적에 이미 한 덩어리 동근 바 어여하니(古稀未生而驚然-相親)이 그것이지요.”

수월이 한 마디 끼워넣었다.

“어찌 무식하다 무식하다 하셨는데 이렇듯 무엇입니까?”

“무식하다 함은 유식이다 무식이다의 차별을 통 모른다는 뜻이겠지요.”

곰보처사의 말투로 보아 그 사람이 실상치 않은 것을 수월이 짐작하지 못할리 없

었다.

곰보가 말하였다.

“따지고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마지막 대각(大覺)이 새벽 별의의 깨달음으로 가능하셨던 것이지요.”

“흠!”

월은 상대방에게 차츰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우리 조선은 차츰 별들과의 관계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주학(程朱學)은 관에 바친 예(禮)로써 배척을 일삼고 있어서 양반이나 사대부는 백성과 동떨어져 있고 그 공리(空理)만을 주장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의 아이들에게 나는 희망을 겁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별빛입니다. 그 아이들이 별과 함께 공부하는 때가 오면 우리 세상은 마침내 하늘과 땅의 무궁함이 펼쳐져서 밤에는 온통 별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 함께 있고 낮에는 땅 위의 온갖 꽃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과 하늘을 재우는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수월은 더이상 그의 말만 듣지 않았다. 듣고보니 곰보가 유창하게 펼치는 말은 도(道)의 말이 보다 한갓 사정(詞章)의 정취로 된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도피안사가 있다 없다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간 목소리가 왔다. 그 목소리는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바른 대답을 들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였다. 결코 어물어물 넘어갈 수 없었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몇 구절이 공연히 나뉠대는 헛바다이 아닐 것입니다. 이름이나 모양이나...”

“나는 도피안사를 믿고 있습니다.”

“글쎄 나는 그 말이 고구려때 지었는지 신라 진흥왕 때 지었는지 아니면 고려 왕씨(王氏)들이 비보사찰(佛補寺刹)로 지었는지 도무지 알 바 없습니다. 나는 내 낯쪽에 곰보자국 조차도 보지 못하면서 곰보라는 이름을 얻고 있으니 숫제 공짜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체(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를 위해서 세계(世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필 중이 되어 떠도는 것도 교조(敎祖) 석가모니부처님의 체를 이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곰보는 화를 내는 것 같이 큰 소리를 냈다.

“저 알지도 못하는 가십잡자로부터 1조니 2조니 시작해서 달마를 28조로 삼기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삼종(三宗) 제1조로 삼기고 있는 것도 실로 우스꽝스러운 노릇입니다. 어떻게 깨달음에 조종(詔宗)이 있고 그 법을 전하는 재자가 대대로 이어져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까?”

“모두 다 망상입니다.”

“...”

“금강산 들어가는 길이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만.”

“그곳 신계사에 가서 한 도인을 만난다고 해서 천지가 한번 개벽이라도 되겠습니까?”

“개벽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간다는 생각도 굳이 없습니다. 그저 가는 길이요 가야할 길입니다.”

“그 신계사 도인의 이름을 아시지요?”

그때 작두로 마른 풀다발을 벌듯이 당당 대답하였다. “별이 있어버렸습니다. 신계사라는 절 이름도 있었다가 이제야 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곰보처사가 멀리 내금강 쪽을 바라보며 한 마디 세부리는 것이었다. “제법이로군. 금강산에 들어가 한바탕 휘저어볼지도 모르겠지... 그래야겠지. 그래야 금강산도 깜짝 놀라 눈을 부비게 되겠지.”

이땅의 아이들에게 나는 희망을 겁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은 별빛입니다

새삼 곰보처사의 코에 주름이 모아지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의 입이 열렸다.

“도피안사는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

“화상들께서 있다고 여겼을 때는 그것이 있었고 화상들께서 돌아다보았을 때 그것이 없었던 것은 이미 화상들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없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를 소리요. 피리를 불고자 할진대 피리소리를 마련해야하지 풍소리를 내서는 안되겠지요.”

곰보처사가 그의 음직한 수월을 한번 쓰다듬었다.

“저 저쪽 단세교(斷世橋)를 건너갑시다. 거기 가서 요기라도 합시다.”

라고 곰보가 제안하였다.

수월도 과연 그 제안에 따랐다.

그런데 단세교는 아주 낡았고 지난번의 큰비로 그 둘 난간의 한쪽이 어긋나 있었다. 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다.

그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바로 다리의 기둥 하나가 무너지며 다리 전체가 계곡의 물 속에 툇허버렸다.

곰보처사가 한 마디 내뱉었다. “다시는 이 다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인가 봅니다.”

이제부터 수월이 말을 이어 가고자 하였다.

“도피안사는 언제 참견한 절입니까?”

그때 곰보처사가 정색하였다.

“화상! 나는 화상의 이름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름이나 어떤 유서 따위야말로 헛

를 냈다.

“저 알지도 못하는 가십잡자로부터 1조니 2조니 시작해서 달마를 28조로 삼기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삼종(三宗) 제1조로 삼기고 있는 것도 실로 우스꽝스러운 노릇입니다. 어떻게 깨달음에 조종(詔宗)이 있고 그 법을 전하는 재자가 대대로 이어져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까?”

“모두 다 망상입니다.”

“...”

“금강산 들어가는 길이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만.”

“그곳 신계사에 가서 한 도인을 만난다고 해서 천지가 한번 개벽이라도 되겠습니까?”

“개벽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간다는 생각도 굳이 없습니다. 그저 가는 길이요 가야할 길입니다.”

“그 신계사 도인의 이름을 아시지요?”

그때 작두로 마른 풀다발을 벌듯이 당당 대답하였다. “별이 있어버렸습니다. 신계사라는 절 이름도 있었다가 이제야 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곰보처사가 멀리 내금강 쪽을 바라보며 한 마디 세부리는 것이었다. “제법이로군. 금강산에 들어가 한바탕 휘저어볼지도 모르겠지... 그래야겠지. 그래야 금강산도 깜짝 놀라 눈을 부비게 되겠지.”

그림 · 조항숙

천개의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을 불러들여 보다 아름답고 통쾌한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삶의 지침서!

석우스님 지음

기초교리부터 다시 읽어 합니다

20여년을 승려 생활하면서 스님, 왜 불교는 스님마다 실법이 다릅니까? 불교는 잘못하면서도 도통 모르겠습니까. 스님, 불교는 왜 통일되고 체계있는 이론이 없습니까? 깨달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후시 누가 초심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많은 서적 중에서 어떤 책을 소개해 주어야 하는지 난감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이 너무 많아서라거나 그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말 초심자에게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강의를 마감하며 이 책을 내었습니다. 책을 내어보니 부족한 점은 없지 않으나 그나마 속이 후련합니다. 하고 많은 책 중에서 왜 기초교리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중급교리인 반야심경과 금강경도 쉽고 재미있게 책을 작성합니다. -저자의 말-

부처님은 누구인가?

부처님을 알려면 본래적인 의미의 부처님과 역사적인 부처님을 다 알아야 합니다. 본래적인 부처님은 우주의 주체입니다. 그것을 법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천리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주의 신이 있어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법성의 법칙에 의하여 우주가 벌어진 것입니다. 주변에 이미 그러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을 잘 둘러보면 과거·현재·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탐구심만이 우주의 근원과 그 결과를 알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중생과 부처님은 어떠한 관계인가? 이제 이런 문제로 자비의 천화에 전화걸지 마십시오. 문제의 답을 자기의 속에서 찾으십시오. 확실한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알면 우주를 알고, 자신을 깨달으면 대자연을 알니다. 당신은 지금 거기에 있는 당신이 진정한 당신의 정체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초교리서가 아닙니다.
늦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값 6,500원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30번지 ☎ (02) 720-1147-8

불기 2540년 丙子年 달력 16나한도 보급안내

귀의 삼보하움고
저희 감로출판사에서서는 불기 2540년 (병자년) 16나한도 불교달력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 제작과정이 복잡하므로 미리 서신이나 FAX로 주문바랍니다.

감로 기획

1110-14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전화 : (02) 723-4306-7
팩스 : (02) 738-8682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달력 크기 26cm x 26cm